

이슈 판권

文지지가 찍은 사진, 文정부 비판서적에 무단사용...法 “1천만원 배상”

법원 “공정적 측면 부각위해 찍은 사진, 의도와 반대로 사용”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서적 표지에 문 대통령 지지자가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정완)는 이모씨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해당 사진이 포함된 서적을 판매하지 말고,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서적과 광고물들을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사진작가 이씨는 2015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주최 박근혜정부 비판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씨는 이날 패널리로 참가한 당시 문재인 대표를 촬영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최씨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적을 출간했는데, 표지에 이씨가 촬영한 사진을 사용했다. 이에 이씨는 저작권재산권 침해로 500만원을 위자료로 1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청구하고, 서적을 폐기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인터넷에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진이고, 선거공보물에 사용돼 민주당에 저작권이 있다”며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진이 이씨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공보물 등에 사용되지 않았고 당시 지지자들이 패러디 영상물 등에 이용했을 뿐”이라며 사진의 저작권 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모두 이씨가 가지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은 300만원으로 정했다.

저작인격권 침해 위자료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 지지자 이씨가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사진을 촬영했는데, 의도와는 반대로 문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는 서적 표지로 사용됐다”며 700만원으로 정했다.

스미싱·피싱에 저축은행 ‘골머리’

반복 사기 대출에 금감원 분쟁조정까지 ‘속앓이’

공공기관 사칭 수십여곳 달해...각별한 주의 요구

#캐피탈사에서 15%대 금리로 3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김모씨는 추가 대출이 필요했다. 이곳저곳 온라인 대출 카페를 살펴보다가 우연히 A저축은행 장모 대리를 알게 됐다. 연 5% 금리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린 김씨는 대출신청을 위해 설치하라는 앱을 다운받은 직후 상황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이 앱은 이른바 ‘전화가로채기’라는 휴대폰 해킹 앱이었다. 김씨가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뿐 아니라 계좌에서 300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저축은행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SMS와 Phishing의 합성어)이 활개치고 있다. 저축은행 고객들 중 상당수가 시중은행을 찾는 고객들에 비해 대출이 절박한 경우가 많아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는 점을 노린 범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저축은행은 최근 사칭 대출 모집 법인을 사칭한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칭 연락처 6개와 카카오톡 ID 등을 공개했다.

신한저축은행도 ‘신한저축 수탁법인 쉐어 플러스’라는 카카오톡 페이지를 통해 사칭 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카카오톡에서 ‘신한저축’을 검색하면 공식 페이지와 함께 신한 로고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 페이지가 표시됐다. 신한저축은행과 어떠한 수탁 계약을 맺지 않은 사칭 페이지였다.

이 페이지에선 연 4.0~5.5% 금리로 최소 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자, 학생, 주부도 신청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대출 진행을 위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업체다.

신한저축은행은 “콜센터로 통해 사칭 관련 고객 문의가 최근 늘어나 소비자 주의 차원에서 공지하게 됐다”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대출사기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칭은 새로운 일이 아닐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SBI저축은행·OK저축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를 유사하게 배간 사례도 있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인을 사칭해 대출사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 분쟁조정까지 들어간 상황”이라며 “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금융공기업 서민금융진흥원도 수십여곳에 달하는 사칭 페이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탐지된 스미싱 건수는 17만 6200건으로 전년동기 14만5093건 대비 21.5%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면 전화를 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니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카드를 기부하는 스마트형 자선냄비 27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김광수 한국구세군 사령관과 모델 등이 휘슬러 코리아와 한국구세군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캠페인 자선냄비 ‘희망열차’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휘슬러코리아는 희망열차를 12월 말까지 시청광장에서 운영하며 스마트형 자선냄비를 구세군에 지원했다. ‘스마트형 자선냄비’는 기부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간단한 카드 터치만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여수 윤활유 판매장서 큰 불...임야도 불에타

20ℓ 짜리 윤활유 드럼통 1000개 불...인명피해는 없어

27일 오전 9시55분쯤 여수시 울촌면 가구단지 내 윤활유 판매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윤활유 판매장에 저장된 윤활유 2만ℓ(20ℓ 짜리 1000통)에 불이 붙어 인근 가구 판매점과 사무동 등 총 5동을 태웠다. 이중 3동은 완전히 전소됐다. 불은 인접한 야산으로도 번져 임야 1652㎡를 태웠다.

이 단지는 윤활유 판매장 6동, 가구 판매점 2동, 사무실 2동 등 총 10동으로 이뤄진 단지로 화재로 단지 내 건물 절반에 해당하는 5동이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자 가구단지에서 일하던 종업원들과 인근 주민들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150명과 헬기 4대, 펌프차 24대를 포함한 장비 48대를 투입, 두시간여만에 큰 불을 잡은 후 오후 1시11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건물이 조립식 패널로 이뤄졌고

윤활유에 불이 붙으며 검은 연기가 계속 치솟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긴급구조 통제단을 운영해 인접 주유소와 아파트, 야산 등으로 불길의 번지는 것을 막았다. 소방당국 등은 차량용 윤활유 취급업체 참고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수=김도현 기자



27일 오전 9시56분쯤 여수시 울촌면 가구단지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키즈카페·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은 최근 증가 추세인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3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탈출카페는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소관부처나 법령상 규제근거가 미흡해 소방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위험 평가대상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양궁장 등 5개 업종으로 진행된다. 각 업종별로 20개 소씩 총 100개소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중심으로 표본조사한다. 소방청은 이번 평가에 앞서 업종별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지표 도출을 위해 올 8~9월에는 20개 신종업종에 대한 사전 표본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작성된 평가지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피난능력, 건축방재 등 10개 항목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가, 업종당 평균값이하일 경우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7인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129 | 1577-1000